

분만통증 관련 간호요구에 대한 내용분석

여 정 희* · 백 설 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에는 분만통증을 신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통증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곧 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져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그 시절에는 그러나 대다수의 분만이 가정내에서 이루어져 친정 및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등의 혈족도 분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어 산부들은 보다 쉽게 분만 통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1990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대다수의 산부들은 병원분만을 함에 따라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과 접하게 되고, 의료기술에 쉽게 노출되며, 혼자서 분만을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분만이란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리적인 기전으로 불건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만 통증을 경험함으로써 산부들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분만에 대한 심리적 위기감 때문에 산부들은 의료인 특히 산부와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간호사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된다.

따라서 분만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간호중재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설정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강정희(1981)는 임부의 63.3%에서 심리적으로 불안, 공포를 경험하며 특히 분만시 통증에 관한 불안, 공포가 대부분이라 하였으며, 김현경(1994)의 분만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에서도 강정희의 연구를 증명이나 한 듯이 분만전 경험의 대부분이 분만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표현되었다(김현경, 1994).

따라서 산부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분만통증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이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 통증의 특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관리의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통증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며 겪는 사람이 통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으로 주관적인 면이 많다(Meinhart와 McCaffery, 1983). 산부의 경우에도 분만통증을 아프다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인격적인 성숙과 성취감,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하는 이도 있다(김현경, 1994; 여정희, 1999; Morgan, Bulpitt, Clifton와 Lewis, 1982; Norr, Block, Charles, Meyering와 Meyers, 1977; Salmon과 Miller, 1990; Waldenstrom, Borg, Skold와 Wall, 1996).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따라서 통증의 완벽한 제거만이 분만에 대한 만족감을 낳게 하는 것은 아니다. Waldenstrom 등(1996)은 통증의 긍정적인 면은 경험한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려는 의지와 어려움의 극복에서 오는 만족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산부들이 분만통증시 기대하는 간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간호수행을 함으로써 산부에게 분만에 대한 만족감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분만통증시 산부들이 기대하는 간호요구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분만통증시 간호요구의 빈도를 파악한다.
- 2) 분만통증시 간호요구를 분류한다

II. 문헌고찰

간호란 사람들의 건강요구에 관계된 간호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며, 간호문제들은 건강요구에 적절한 간호 제공으로서 개인이나 가족의 처해진 상황에 맞게 전문적인 간호수행을 통해 해결된다(George, 1980). 따라서 대상자의 간호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간호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산부들에게도 적절한 간호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간호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외국의 경우에는 산부들의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적은 편이며 양적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Halldorsdottir와 Karlsdottir(1996)에 따르면 산부들이 돌봄으로 지각한 간호사의 특성은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정중하고 협조적이며, 산부와 효과적인 대화를 하는 간호사라고 보고하였다. Bryanton, Fraser-Davey와 Sullivan(1993)은 산부들은 산부 자신이 개별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느낄 때, 칭찬 받을 때, 자신감을 줄 때, 호흡법과 이완법을 도와 줄 때, 존중해 줄 때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Kintz(1987)는 78명 산모들은 분만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지도'였으며, 그 다음은 칭찬을 받을 때, 존중 받을 때, 친절하게 대해 줄 때, 돌봄을 해 줄 때, 수용해

줄 때 등 6가지가 최고의 간호지지 행위라고 하였다. Field(1987)는 간호 돌봄이 분만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개별적으로 간호를 받았다고 느낄 때, 사실을 제공받을 때, 격려가 될 때, 존중 받는다고 느낄 때, 잘했다는 말을 들을 때, 분만과정이 쉽다고 느끼게 해줄 때, 주의 전환을 제공받을 때, 친절하게 대해 줄 때, 지식이 많을 때, 질문에 반응할 때,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때, 소개받을 때, 연속적으로 간호를 해 줄 때 등을 표현하였다. Brown과 Lumley(1994)는 분만 중 간호에 불만족한 요인으로 의사결정의 참여부족, 불충분한 정보, 산과적 중재, 간호제공자가 도움이 안된다고 지각할 때라고 밝혀 간호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산부들의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로서 Shields(1978)는 80명의 산부에게 분만동안의 주관적인 요구를 파악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지지적 행위는 분만통증을 사정할 수 있는 간호사의 능력과 산부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적하면서 불안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간호제공자의 전문지식과 능력으로 간호제공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은 교육과 안심, 편안함과 관심이라 하였다. Mackey와 Lock(1989)는 산부들은 누군가와 같이 있기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신체적인 사정을 받기를, 정보를 제공받기를, 편안하기를, 지지받기를 기대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면 안혜숙(1976)은 산부들은 정상분만을 희망하는 요구, 분만 중에 간호사나 가족의 임석의 요구, 간호사로서의 적절한 역할수행의 요구, 간호사의 친절과 간호사와의 원활한 관계유지의 요구, 분만 중의 영양섭취의 요구 등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김명자(1984)는 신체·생리적인 간호요구 중 진통시 힘주는 방법과 호흡법에 관한 설명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심리적·대인관계의 간호요구에서는 간호사의 친절하고 능숙한 태도에 관한 문항과 산부의 호소를 주의깊게 들어 주며 즉시 응하는 문항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예방적인 간호요구에서는 분만대기실의 주위를 조용하게 해 주고, 채광을 조절해 주며, 침상 주위를 깨끗이 정돈해 준다는 문항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산부의 간호요구는 개인마다 독특하고 다양하였다. 특히 여러 연구자들(Berg, Lundgren, Hermansson과 Wahlberg, 1996; Butani와 Hodnett, 1980; Bryanton 등, 1994; Kintz, 1987)

은 산부들은 개별적으로 돌보아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여 개별적인 간호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호요구를 조사한 몇몇의 연구는 있었지만 설문지를 통해 산부의 간호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것으로 개별적인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산부들의 간호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한 간호수행을 수행한다면 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분만통증시 산부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분석이다.

1.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면담이 가능하고, 분만 후 1-2일 경과된 초산모 20명과 경산모 17명으로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임신에서 산육기까지 아무런 합병증이 없었으며, 임신기간동안 산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분만동안 진통,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분만동안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였으며, 정상 질식 분만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보면 초산모의 경우 나이는 20세에서 34세까지로 연령상 고위험군은 없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이 10명, 고졸이 10명이었고 모두 다 병원분만이였다. 경산모의 경우 나이는 25세에서 36세이었으며, 분만력은 2회가 13명, 3회가 4명이었고, 교육정도는 대졸이 9명, 고졸이 8명, 분만장소는 조산소가 5명, 병원이 12명으로 병원분만이 더 많았다.

2.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3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본 연구자에 의해 수집되었다. 자료수집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면담하였다. 면담시 대상자의 표현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면담장소는 분만 후 1-2일 선택하였기 때문에 산모가 입원한 병원(3차 의료기관)이나 조산소였으며, 면담시간은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평균면담시

간은 30분 정도로 1회만을 하였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개방적인 질문을 하였다. 분만통증시 무엇이 가장 필요하였습니까? 분만통증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분만통증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분만통증시 가장 좋은 간호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3. 자료분석

- 1) 대상자의 면담시 녹음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간호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 2) 간호요구와 관련된 내용 중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각 진술내용마다 빈도수를 구하고, 그 내용의 공통된 속성을 찾아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 상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 3) 영역별로 분류된 자료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문학과 박사 1인에게 속성에 맞게 영역에 선정되었는지 검증받았다.

Ⅳ. 연구결과

대상자와의 면담 자료에서 분만통증시 간호요구와 관련된 진술내용 134개 중 유사한 내용을 통합시켜 38개의 진술로 나타났으며, 이를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17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 6개의 상위영역을 도출하였다(표 1).

6개의 상위영역은 '신체적 요구' '의료행위의 요구' '심리적 요구' '정보와 교육의 요구' '통증조절의 요구' '인격적 요구' 이었으며, 각 상위영역별 진술내용의 빈도수를 보면 134개의 진술내용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심리적 요구로 38개였으며, 그 다음은 신체적 요구로 25개, 통증조절의 요구와 인격적 요구가 각각 24개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정보와 교육의 요구가 15개, 가장 적은 내용이 의료행위의 요구로 8개로 나타났다.

38개의 진술내용 중 산부들이 신체와 관련되어 요구하는 내용을 신체적 요구로 명명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은 '편안한 자세'와 '접촉'이었다.

산부들이 신체적으로 요구한 진술내용은 대부분이 신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체위보다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되기를 바랬고, 침상에 누워있기보다는 걸어다니기를 원하였다. 또한 산부들은 통증시 이마에

손을 얻거나 마사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가만히 그냥 두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체적 요구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산부의 몸에 손을 대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기를 바란다'와 '산부가 원하는 체위로 취하기를 바란다'는 신체적으로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산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기를 바람을 알 수 있었다.

산부들이 진술한 내용 중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능숙한 기술과 본분을 다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은 의료행위의 요구로 분류하였고 하위영역으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의무수행'이었다. 즉 산부들은 분만진행 상태와 자신과 태아의 상태를 자주 관찰해 주기를 원하고, 중재를 원할 때 즉각적인 행위를 취해주기를 바랐다. 또한 분만진행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시행하는 내진은 불편감을 증가시키며, 의료인의 서투른 기술보다는 능숙한 기술로 의료행위시 아픔 없이 짧은 시간내에 수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분만동안 노의에 민감하지 못함을 감안할 때 소변을 하도록 권하는 행위가 분만진행과 신체적 편안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동안 분비물로 인하여 시트가 젖는 경우 빠른 시간내에 갈아주기를 원하였다.

의료행위의 요구에 있어서 각 진술내용은 한번 아니면 두 번의 빈도를 보였다.

다음은 심리적 요구로써 '지지' '동석과 대화' '안정된 환경' '안심'의 하위영역을 가지며,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진술내용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로 134개 중 11개였으며, 그 다음은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이기를 바란다'와 '의료인으로부터 격려, 위로, 칭찬 받기를 바란다'로 각각 8개를 차지하였다.

심리적 요구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한 요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산부들은 분만통증을 겪고 있는 동안 의료인으로부터 격려와 칭찬,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태아가 건강하다는 말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아픔을 참는데 도움이 되었다. 즉 산부들은 아픔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져 있는 동안 참으려는 노력에 칭찬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며, 더 나아가 통증을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산부들은 분만실에서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누군가와 같이 있기를 원하였다. 대부분의 산부들은 시댁 식구와 같이 있으면 아픔을 마음껏 표시할 수 없고, 참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웠

다고 표현하면서 친정어머니나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산부들은 분만실에서 다른 산부들의 고통소리에 불안해 하여 나만의 공간을 갖기를 원하며,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과 부드러운 조명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를 바랐다. 그리고 분만진행동안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대화를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산부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분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를 원하였다. 이를 정보와 교육의 요구로 명명하였으며, 하위영역은 '분만에 관한 정보' '의료행위시 설명' '환경에 대한 정보' '통증완화에 대한 교육'이었다.

정보와 교육의 요구에서 많은 빈도를 보인 진술내용은 '순산시 필요한 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기를 바란다'와 '분만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미리 설명해 주기 바란다'이었다.

정보와 교육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부들은 분만통증이 발생하는 이유와 분만진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진행정도를 알기를 원하고, 분만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원하였다. 또한 분만실 환경에 대한 설명과 처치에 앞서 설명을 요구하고, 다른 산부들에 대한 실례를 듣기를 원하였다.

다음은 통증조절의 요구로써 산부들은 분만통증이 자의적이든 인위적이든 완화되기를 원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하위영역은 '자의적 조절'과 '인위적 조절'이었다.

통증조절의 요구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진술내용은 '통증을 스스로 완화하기를 바란다'로 134개 중 15개를 차지하였으며, '신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가 3개의 빈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산전교육을 받지 않은 산부들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향을 지른다, 다른 곳을 아프게 하여 통증을 유도한다, 신음소리를 낸다, 스스로 마사지를 한다, 아름다운 추억을 연상한다, 스스로 최면을 건다, 스스로 침착하려고 노력한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려 하였고 신체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분만통증을 인위적으로 조절되기를 바라는 산부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산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를 인격적 요구로 분류하였으며, '존중' '관심' '의견반영'의 하위영역을 가졌다.

인격적 요구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진술내용은

134개 중 8개로 나타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이었으며, 두 번째는 '산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기를 바란다' 로 6개이었으며, 세 번째는 4개로 나타난 '산부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바란다' 이었다. 즉 산부들

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노출된 부위를 가려주기를 원하고, 의사결정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기를 바라며,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 주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산부들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태도를 원하

〈표 1〉 분만통증시 간호요구

상위영역	하위영역	진술내용	빈도수 (N=134)
신체적 요구	편안한 자세	산부가 원하는 체위로 취하기를 바란다	7
		걸어 다니기를 원한다	1
		산부의 몸에 손을 대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기를 바란다	12
	접촉	마사지를 원한다	3
		이마에 손을 대어 주기를 바란다	2
	소계		25
의료 행위의 요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의료인은 능숙한 기술을 가지기를 바란다	1
		내진을 자주 하는 것을 싫어한다	1
	의무수행	진통과 모아상태를 자주 측정해 주기를 바란다	2
		소변을 자주 보도록 권유하기 바란다	1
		회진을 자주 해주기를 바란다	1
		분만까지 내내 청결한 침상이기를 바란다	1
		중재를 원할 때 즉각적인 행위를 취하기를 바란다	1
	소계		8
심리적 요구	지지	의료인으로부터 격려, 위로, 칭찬 받기를 바란다	8
		가족에게 위로 받기를 바란다	1
	동식과 대화	이야기할 상대가 있기를 바란다	4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11
	안정된 환경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이기를 바란다	8
		음악을 듣기 바란다	1
		다인실보다 1인실이기를 바란다	3
	안심	태아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2
	소계		38
정보와 교육의 요구	분만에 관한 정보	분만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미리 설명해주기 바란다	4
		통증 발생기전을 알기 바란다	1
		분만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1
		다른 산부의 경험담을 듣기 바란다	1
	의료행위시 설명	처치시 상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1
	환경에 대한 정보	분만실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기 바란다	1
	통증완화에 대한 교육	순산시 필요한 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기 바란다	6
	소계		15
통증 조절의 요구	자의적 조절	통증을 스스로 완화하기를 바란다	15
		신경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3
	인위적 조절	진통시간을 짧게 해주기를 바란다	1
		제왕절개술을 바란다	2
		무통분만이나 진통제를 바란다	3
	소계		24
인격적 요구	존중	노출된 부위를 가려주기를 바란다	1
		산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기를 바란다	6
		산부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바란다	4
		의료인이 친절한 태도를 보이기를 바란다	3
	관심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8
	의견반영	의사결정시 산부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2
	소계		24

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며, 성심 성의껏 돌아 주기를 원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바랬다.

V. 논 의

통증은 주관적인 면이 강한 개념으로 이를 겪는 산부들은 다양한 간호요구를 나타내었다. 산부들이 분만통증시 원하는 간호요구는 '신체적 요구' '의료행위의 요구' '심리적 요구' '정보와 교육의 요구' '통증조절의 요구' '인격적 요구' 이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심리적 요구'로 안혜숙(1976)과 김명자(198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었다. 또한 Kartchner(1950)도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요구를 가지지만 임신과 분만중에는 심리적인 요구가 증가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신체적 요구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바라는 결과로 산부들은 통증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의 불편이 없기 바라며, 신체적으로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에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주기를 원하였다. Butani와 Hodnett(1980)와 Roberts(1983), 최명숙(1989)은 산부들에게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은 분만동안 산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간호지지행위 중의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산부가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배려함이 필요하며, 때로는 치료적인 차원에서 이로운 행위를 강요하지만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산부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는 의료행위의 요구를 가졌다. Bluff와 Holloway(1994)는 산부가 조산사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지식에 둔다고 하였으며, Shields(1978)는 가장 중요한 지지적 행위로 사정할 수 있는 간호사의 능력과 여성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적하였다. Halldorsdottir와 Karlsdottir(1996)는 간호행위시 산부를 예민하게 다루지 못하고 거칠게 할 때와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할 때를 비둘봄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Brown과 Lumley(1994)는 빈번한 산과적 중재가 분만동안의 간호에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임을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진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따라서 간호사는 분만시 필요한 간호수행시 불편감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간호사의 의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부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유지되기를 바랬다. 심리적 요구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진술내용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로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었다. Mackey와 Lock(1989)은 산부들은 분만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고 보고하였고, 안혜숙(1976)도 산부들은 분만중에 간호사나 가족이 같이 하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명숙(1989)은 산부들은 '특별히 해주어야 할 간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 주는 것' 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되도록이면 산부와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며, 병원당국에 가족분만실을 두도록 건의함이 필요할 것이다.

심리적 요구 중 두 번째로 빈도가 많은 진술내용은 의료인으로부터 격려와 위로, 칭찬 받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Butani와 Hodnett(1980)는 격려와 안심의 제공 등 심리적인 요구가 있음을 밝혔고, Bryanton 등(1993)은 산부에게 칭찬을 해줄 때, 자신감을 북돋아 줄 때, 개별적으로 돌보아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산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간호지지행위라고 보고하였다. Kintz(1987)도 20가지의 간호사의 행위 중 가장 도움이 되는 항목부터 나열하였을 때 산부의 노력에 대한 칭찬 행위와 친절하고 개별적인 간호행위가 각각 2, 3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산부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에도 많은 격려와 칭찬, 위로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부들은 안정된 환경을 원하였는데 이는 산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간호지지행위 중 하나로 보고되어(Butani와 Hodnett, 1980; Roberts, 1983)산부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는 산부 주위의 환경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구는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부들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기 원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이러한 결과는 Mackey와 Lock(1989)이 연구한 산부의 기대에 대한 질적 접근에서와 같은 결과였다. 질적 접근에

서 나타난 7가지의 범주 중 '정보'가 포함되어 산부들은 모르는 내용과 예상되는 상황을 알기 원함을 알 수 있었다. Brown와 Lumley(1994)는 산부에게 불충분한 정보제공은 간호에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임을 보고하였고, 최명숙(1989)과 Kintz(1987)도 교육이 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간호지식 행위로 나타나 교육을 받고 싶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간호수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Field(1987)는 분만진행과 분만경험에 대한 만족감은 분만진행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더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정보제공은 분만경험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는 산부들에게 분만진행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통증완화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산부들은 통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utani와 Hodnett(1980)의 연구에서도 나타났으며, 김명자(1984)의 연구에서는 산부들은 분만통증에 대한 인위적인 조절을 싫어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산부들에게 분만통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며,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에 대해 칭찬과 격려, 용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떤 산부들은 인위적으로 분만통증이 완화되기도 기대하였다. 산부들은 분만통증을 자가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 보지만 분만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조절을 원하기도 하였다.

Waldenstrom 등(1996)이 밝혔듯이 분만통증이 잘 조절될수록 분만경험이 긍정적임은 확실하나 산부 자신의 노력없이 인위적인 조절로 완화된 통증에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분만통증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으로 종종 지각되나 산부들은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인위적인 조절에 대해 간호사는 잘 대처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인위적인 조절보다는 스스로 노력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함이 분만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부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바랐다. 김명자(1984)는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 자주 물어봐 주고, 노출된 부위를 흠이불로 가려주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다'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산부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음을 보고하였다. Kintz(1987)와 Bryanton 등(1993)은 산부를 존중하

고 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산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보고해 인격적인 요구가 산부에게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Simkin(1991)은 산부가 친절과 존중으로 다루어지고 참여자로서 느낄 때 분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산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며, 의사결정에도 산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산부들은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분만통증에 대하여 다양한 요구를 하였다. 즉 산부들은 생리적인 통증에 대한 중재보다도 신체적·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유지하기를 바라며,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환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간호요구들은 외국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산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은 산부들은 분만경험이 긍정적이 됨이 보고되어 산부를 위한 간호수행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분만경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만통증을 중재하기 위하여 통증시 산부들이 원하는 간호요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초산모 20명과 경산모 17명을 대상으로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분만통증시 간호요구와 관련된 진술내용 134개 중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38개의 진술을 얻었으며, 이를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17개의 하위영역과 6개의 상위영역으로 분류되었다. 17개의 하위영역은 '편안한 자세' '접촉'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의무수행' '지지' '동석과 대화' '안정된 환경' '안심' '분만에 관한 정보' '의료행위시 설명' '환경에 대한 정보' '통증완화에 대한 교육' '자의적 조절' '인위적 조절' '존중' '관심' '의견반영' 이었다. 이로부터 상위영역은 '신체적 요구' '의료행위의 요구' '심리적 요구' '정보와 교육의 요구' '통증조절의 요구' '인격적 요구' 이었다..

134개 진술내용 중 신체적 요구에 해당되는 진술내용이 25개였으며, 의료행위의 요구는 8개, 심리적 요구는 38개, 정보와 교육의 요구는 15개, 통증조절의 요구는 24개, 인격적 요구는 24개로 이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은 심리적 요구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의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를 바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양적인 연구의

설문지에 나타난 문항과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른 점은 없었지만 분만통 증시 산부들이 원하는 간호요구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정리하였다는 점과 우리나라 산부들의 간호요구를 사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의 기초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산부들에게 제공한 간호수행의 효과에 관한 연구와 산부들의 간호요구를 사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정희 (1981). 임신부의 불안공포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0(2), 1-11.
- 김명자 (1984). 산부의 분만대기중 간호요구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경 (1994). 초산모의 출산경험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혜숙 (1976). 산부의 간호요구와 간호원의 간호활동과의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6(1), 51-59.
- 여정희(1999). 경산모의 분만통증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3), 277-286.
- 최명숙 (1989). 분만과정중 간호지지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g M., Lundgren, I., Hermansson, E., and Wahlberg V. (1996). Women's experience of the encounter with the midwife during childbirth. Midwifery, 12, 11-15.
- Bluff R and Holloway I (1994). They know best: women's perspective of midwifery care during labour and childbirth. Midwifery, 10, 157-164.
- Brown, S., and Lumley, J. (1994). Satisfaction with care in labor and birth: A survey of 790 Australian women. Birth, 21(1), 4-13.
- Bryanton, J., Fraser-Davey, H., and Sullivan, P. (1993). Women's perceptions of nursing support during labor. JOGNN, 23(8), 638-644.
- Butani, P., and Hodnett, E. (1980).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labor experience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9, 73-82.
- Field, P. A. (1987). Maternity nurses: How parents are us. Int J Nurs Stud, 24, 191-199.
- George, J. B. (1980). Nursing Theories(The base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Pri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 Halldorsdottir, S., and Karlsdottir, S. I. (1996). Empowerment or discouragement: Women's experience of caring and uncaring encounters during childbirth.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7, 361-379.
- Kartchner, F. D. (1950). A study of the emotional reactions during labor. Am J of OBGY, 60(1), 19-29.
- Kintz, D. L. (1987). Nursing support in labour. JOGNN, March/April, 126-130.
- Mackey, M. C. and Lock, S. E. (1989). Women's expectations of the labor and delivery nurse. JOGNN, 18, 505-512.
- Meinjhart, N. T. and McCaffery, M. (1983). Pain: A nursing approach to assessment & analysis. Norwalk, A-C-C.
- Morgan, B. M., Bulpitt, C. J., Clifton, P., and Lewis, P. J. (1982). Analgesia and satisfaction in childbirth(The queen charlotte's 1000 mother survey). Lancet, 9, 808-811.
- Norr, K. L., Block, C. R., Charles, A., Meyering, S., and Meyers, E. (1977). Explaining pain and enjoyment in childbirth.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 260-275.
- Roberts, J. C. (1983). Factors influencing distress from pain during labor. MCN, 8(1), 62-66.
- Salmon, P., and Miller, R. (1990). Women's anticipation and experience of childbirth: The independence of fulfillment, unpleasantness and pain.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255-259.
- Shields, D. (1978). Nursing care in labor and patient satisfaction: A descriptive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 535-550.
- Simkin, P. (1991). Just another day in a

women's life? Women's long-term perceptions of their first birth experience, Part I. *Birth*, 18, 203-210.

Waldenstrom, U., Borg, I. M., Skold, M., and Wall, S. (1996). The childbirth experience: A study of 295 new mothers. *Birth*, 23(3), 144-153.

- Abstract -

Key concept : Labor Pain, Nursing Needs

A Contents Analysis of Nursing Needs at Labor Pain

Yeo, Jung Hee* · Baek, Seol 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nursing needs during labor pain that had been suffered by women who have given birth.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nursing needs in order to solve nursing problems and to provide better care for the parturients.

The sample consisted of 20 women of primiparas and 17 women of multiparas. They underwent normal labor and delivered a healthy baby at term. The data had been collected through the unstructured interviews conducted 1-2 days after delivery in the admission room from March 1998 to March 1999. On average, the interviews lasted for about 30 minutes. Interviews were taken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s.

The data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imilarities of their contents. Seventeen subordinate categories and six superordinate categories have been identified.

Six superordinate categories are : 1) physical nursing needs 2) nursing needs of medical behavior 3) emotional nursing needs 4) informational and teaching nursing needs 5) nursing needs of pain control 6) nursing needs of respect(personality).

Seventeen subordinate categories include: comfortable posture, touch,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iques, duty execution, support, company and talk, stable surroundings, reassurance, information on delivery, explanation of medical behavior, information on surroundings, instruction on the case of pain, arbitrary adjustment, artificial adjustment, respect, interest and reflection of opinion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the same as that of foreign research and the items of the questionnaire in Korea are the same as the foreign one. Despite the same result, however, this dissertation is significant in that the research identifies the parturients' nursing needs and classified the data and thus the basis has been formed to develop the tools to assess the nursing needs of the Korean parturients.

The findings can be used as the guide for nursing intervention of parturients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